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전남형 뉴딜' 가속화

내년 R&D 분야 국비 72건 2144억 반영 총사업비 1조5000억

2022년 연구개발(R&D) 분야 정부 예산에 전 남도가 추진하는 R&D 및 기반구축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R&D분야 국비 예산은 신규사업 19건 505억원, 계속사업 53건 1639억원 등 총 72개 사업 2144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468억원(28.9%)이 늘어난 규모로, 도비

와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조 56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핵심정책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미'와 '전남형 뉴딜'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전남이 미래 에너지신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 고부가 전극 제조 혁신 기술개발 30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수전해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사업 63억원 등 17건 540억원이 반영됐다. K-글로벌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분야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기능 확대사업 227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14억

원,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 사업 26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이노베이션 랩 구축 28억원 등 16건 604억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운송기기산업 전부를 이끌 트랜스포트 분야는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 구축 사업 20억원, 친환경자동차 튜닝 플랫폼사업 20억원, eVOTL 자율비행(이착륙단계) 핵심 기술·비행 안전성·운용성 시험평가 기술개발 59억원 등 12건 354억원을 확보했다. 석유화학·조선 등 전남 전통의 주력산업과 관련 해선 친환경 전기·수소 선박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 대체 화학공정 기술개발 20억원, 에너지저장 공

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33억원, 탄소중립 전환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20억원 등 18건 522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12억원, 도서 지역 재난·사고 응급환자를 위한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진 연구 6억원 등 기타사업 9건 124억원도 포함됐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R&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완성하고 전남도의 미래를 그리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R&D사업을 지속 확대해 그 성과가 기업 유치·지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3호 문화중심도시 펀드 출범 시비 100억원 포함 총 333억원

제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인 '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Michigan Asia Culture Creation Fund)'가 결성돼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6일 "시에서 100억원을 출자하는 제 3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이 지난 22일 서울 미시간벤처캐피탈(주) 회의실에서 결성 총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결성 총회에서는 '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조합 규약'에 대한 승인과 사업계획, 투자의사결정 심의기구 운영방안, 회계감사인의 선정 등을 심 의·의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펀드는 정부와 시 출자 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도, 투자자원을 확보하 고 지역 문화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지역특화 펀드다. 결성총액은 333억원으로 국비(문화체육관광부 출자) 10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133억원이 투 입된다. 투자조합 운용사로는 미시간벤처캐피탈(주) 지 난 6월 공모심사 결과 선정됐으며, 광주시가 출자 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유 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투자조합의 존속 기간은 8년이며, 5년의 투자기 간 동안 결성총액의 60%인 200억원 이상을 광주 지역에 분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문화콘텐츠 기 업, 프로젝트와 광주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관광 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며, 이후 3년 동안 회수할 계획이다. 제3호 펀드의 향후 세부적인 운용계획 및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광주에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제3 호 투자조합 출범으로 투자진흥지구 일대를 중심 으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중요한 도약판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 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탄절 아동양육시설 찾은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인 합평 삼애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상익 합평교수, 임용수·김경자 도의원과 시설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신안 북부권역 갯벌식생 복원한다

전남도, 해수부 공모사업 유치 150억 들여 4년간 생태기능 개선

해양수산부의 2022년 갯벌식생 복원사업 대상 지로 신안 북부권역 일원(지도읍·증도면)이 선정됐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 가스 저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갯벌 식생(염생식물 군락지)을 복원에 해양생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 북부권역에는 2025년까지 4년간 150억원을 투입, 갯벌의 생태적 기능 개선과 해양생태계 서비스까지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유산 등재 면적의 85%(1100.86km²)를 차지 하는 신안 갯벌은 필갯벌의 상부에서 제한적으로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세계유산지역 기준 전체 출현 54종 중 52종, 국 내 출현종 66종 중 59종의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224종의 저서규조류와 568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는 등 우수한 기초생산력을 지녀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부터 신안갯벌 북부권역의 지형적 특성과 자생군락지를 고려한 대표 염생식물인 해홍나물·칠면초·통통마디·지체·갯잔디 등 5종, 갈피를 복원해 갯벌의 블루카본(Blue carbone) 기능을 확대한다. 또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를 제공해 해양생태 계를 회복하는 한편, 갯벌 탐방로 등 친수시설을 설치한다. 해양생태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광객 증대와 축제·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강성운 전남도 해양환경과장은 "블루카본 저탄 소 기반 확대와 갯벌생태계를 테마로 한 생태관광 지 조성을 위해, 갯벌 식생복원사업 대상지를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 남갯벌의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실현을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갯벌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남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7월 마련, 2022년부터 5년간 4대 중점 추진전략, 10대 핵심 과제에 총사업비 97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 난 14일 해양쓰레기 제로화 및 갯벌 관리방안 마련 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전남 갯벌 세계화 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예방센터 7연속 최우수

전남도가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평가에서 돌봄사업 위탁기관인 (사)문화재예방관 리센터가 광역시·도 중 7연속 최우수단체로 선정 됐다. 문화재청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 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지침 준수, 돌봄활동 수행 평가도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탁월', '매우우 수', '우수', '보통'으로 평가했다. 전남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2009년 전남도가 문화재청 에 사업을 제안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한 사업이다.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 주변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가벼운 파손 발생 시 신속 복구하는 경미수리를 통한 예방 보존관리시 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문화재 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사후 발생할 보수·복원에 따른 예 산 절감 등 효과가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형 보존을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돌봄사업 운영 방법을 표준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재 수리이력제'를 실시, 문화재 관리 현황 기록 누적을 통해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돌봄 사업 육성·발전에 기여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 돌봄사 업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 제외년도인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8년 동안 7차례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문화재 관리 선진지역이란 이미지 구축했 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무·청년정책 특별보좌관 광주시, 동시 공개 모집

광주시가 정무, 청년정책 특별보좌관(특보)을 공개 모집한다. 26일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정책·정무, 청년정책 분야에서 5급 상당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1명씩 선발한다. 정책·정무 분야 임용자는 시정과 관련한 정책 및 정무적 결정에서 시장을 보좌하면서 시정 자문, 주 민 여론 수렴 등 역할을 맡는다. 사퇴한 이남재 전 정무수석(3급)의 후임이지만 직급은 내려갔다. 개 청 이래 처음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 특보는 정책·정무 특보와 역할은 비슷하며 청년 정책에 주력한 다. 두 분야 모두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무관하게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 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6급이나 6급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 력이 있어도 된다. 연간 보수 하한액은 5400여만 원, 근무 기간은 1년이다.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서류 전형 합격자 를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방 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www.kps.co.kr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

환경
Environment

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

S

사회
Social

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G

지배구조
Governance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
안전경영 강화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KPS주식회사